

특집논문 북한 공간의 이해와 접근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

Seeing North Korean cities through the lens of Instagram

황진태\*\*\*

본 논문은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동안 국내 북한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남북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구조로 인하여 남한 사회에 사는 연구자로서 북한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학계는 문헌자료, 구술자료, 시각영상자료로 이어지는 방법론적 개선을 시도해 왔다. 앞선 북한연구자들의 방법론적 고민을 적극 공감한 필자는 기존 방법론을 보완할 새로운 방법으로 SNS(특히, 이미지 공유 중심의 매체적 특성을 갖는 인스타그램)를 주목한다.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북한의 도시공간을 담은 다양한 시각자

\* 본 논문의 초고는 제2회 KINU북한도시포럼(2019.08.28.)과 2019 지리학회 특별 심포지엄 ‘북한지리연구의 현재와 미래’(2019.11.22.)에서 발표되었다. 1회부터 2회까지 KINU북한도시포럼에서 발표기회를 주신 김연철 통일부 장관(前통일연구원장), 임강택 통일연구원장, 홍민 박사께 감사드린다. 연구에 애정을 보여준 이영기 前정보사령부 사령관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리학회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적 정당성을 확보할 유용한 논평을 제공한 정현주 선생님과 논쟁적인 방법론에 격려를 주신 이민부, 박수진, 남종우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끝으로 《공간과 사회》와 타 학술지에 투고되었던 초고에 대한 심사자들의 강렬한 비평이 없었다면 이 원고는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dchjt@naver.com)

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자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북한도시를 비롯한 북한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지리학계와 북한학계가 SNS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북한도시, 인스타그램,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방법론적 국가주의, 평양

## 1. 서론

그동안 국내 지리학계에서 북한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는 1) 북한 사회의 극단적 폐쇄성, 2) 실증자료와 답사를 기초로 하는 지리학 연구의 특성, 3) 대학 중심의 한정된 지리학 연구인력 등으로 요약된다(이민부·김걸, 2016; 김기혁, 2016). 특히, 남북한이 군사적, 이념적으로 대치하면서 북한 자료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이 핵심적이다. 한편, 국내 북한학계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집합적인 연구가 지리학계에 앞서 시도되었다(대표적으로 최환규, 2004; 2006; 2007; 북한도시사연구팀, 2013; 2014). 북한학계는 당과 최고지도자 중심의 ‘위로부터’의 정치에 주목한 기존 접근으로는 현대 북한 사회와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들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그 해결책으로 국가 중심적 시각으로부터 도시로 향하는 ‘도시적 전환(urban turn)’<sup>1)</sup>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인식론의 변화를 뒷받침할 방법론적 고민도 수반되었다. 본 논문은 앞선 북한학계의 방법론적 고민에 공감하

1) 학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및 통일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산하에 2018년 11월 KINU 북한도시포럼이 발족된 사실을 통해서도 북한 연구 및 정책 분야에서 불기 시작한 도시적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개최된 제2회 KINU 북한도시포럼에서 임강택 원장은 “김정은 정권하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도시들은 북한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키워드”(개회사 中)라면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면서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기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의 발전과 한계를 살펴본다. 앞서 지리학자들(이민부·김걸, 2016; 김기혁, 2016)이 지적한 지리학계에서의 북한연구의 어려움은 지리학의 내재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내 북한학계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리학계와 북한학계는 ‘섬과 육지’<sup>2)</sup>와 같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학계와 지리학계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 두 학계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소통의 첫 단추로서 2절에서는 그간 지리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북한학계의 공간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이미지 공유 중심의 매체적 특성을 갖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활용가능성을 논한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2절에서 논한 인스타그램의 방법론적 의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린 이미지들을 통하여 현재 평양의 도시공간을 탐색적으로 독해한다. 필자는 그간 남한도시들을 연구하면서 남한 정부가 공개한 신뢰성 높은 통계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 사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한 담론 분석, 현지답사와 관계자 인터뷰 등의 다채로운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왔었다(Hwang, 2014; Lee et al., 2018; 박배균·황진태, 2017; 서울역사박물관, 2018). 필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지리학자들에게 현지조사와 자료수집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접근 불가능 지역인 북한은 지리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

2) 북한연구자 고유환이 말하듯이 “이제 북한 연구가 북한학 전공자의 전유물인 시대가 지나고 있”으며, “북한현실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고유환, 2015: 29)를 통하여 섬과 육지는 상호 연결되어야 할 시점이다.

있”(안재섭, 2013: 99)지 않은 연구지역이다. 따라서 남한지역 분석에 사용되는 연구방법론을 접근이 어려운 북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남한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객관성과 엄정성을 북한연구에 동일하게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기서 지리학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은 북한연구에 수반되는 연구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학술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지를 가능하거나 또는 남한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요구되는 이론과 사례 간의 학술적 적합성을 북한연구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북한연구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지역학이자 한국학의 일부로서 민족문제 해결”(고유환, 2015: 28)이라는 북한연구의 당위적 목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연구자들은 비록 학술적으로는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엄정성이 떨어지더라도 기존에 활용된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학계 차원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인스타그램에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매체의 특성 때문이다. 첫째, 인스타그램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중심으로 자료를 생산한다. 『이미지의 삶과 죽음』의 저자인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가 “이미지, 그것은 고품질의 양분을 섭취한, 부식될 수 없는 살아 있는 것”(드브레, 1994: 25~26)이라고 말했듯이, 하나의 이미지에겐 텍스트와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러한 이미지들은 가히 폭발적,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다. 시각자료의 해석을 통하여 공간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익숙한 지리학자들에게 인스타그램 이미지는 북한연구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다. 둘째, 북한 매체에 담겨진 텍스트들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 맞추어 가공되면서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인스타그램 자료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셋째, 인스타그램은 SNS라는 쌍방향 매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올리는 이미지를 다른 이용자가 일방향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본 이용자들은 댓글창을 통하여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드러냄으로써 연구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담론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DM(direct message)’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올린 이용자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인스타그램에 제시된 이미지와 텍스트를 넘어선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을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4절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고, 추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 2.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의 발전과 한계

### 1)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갇힌 북한연구

방법론적 국가주의는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을 국가 스케일(national scale)이라는 단일한 렌즈로 들여다봄으로써 국가 스케일 이외에 다른 스케일(글로벌, 도시, 지역 등)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존재와 이들이 국가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공간의 구성과정에 인과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하고, 사회공간적 현상을 곧 국가적 현상으로 동일시하는 인식론적 맹점을 가리키고자 제안된 용어이다(Agnew, 1994; Brenner, 2004; Hwang, 2016).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사회과학에 만연하게 된 계기는 1648년 국가주권에 바탕한 세계질서를 세운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20세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capitalist world-system)와 근대국가 만들기라는 역사적 지층들이 쌓이면서였다(Wallerstein, 1974). 세계체제를 설명하고자 월러스타인이 주도해 온 세계체제론은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고(대표적인 비평으로 Knox and Taylor, 1995),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로 규정되는 한반도의 ‘분단체제(론)’(백낙청, 1998)도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소련과 미국 간의 대립을 양분 삼은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에서 발아된 분단체제하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념을 내세우면서 적으로 규정하고,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을 결속시키는 영역화 전략에 근거한 적대적 공존을 취하였다(Lee et al., 2014). 반북/반공이데올로기는 남한 학계의 북한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sup>3)</sup> 냉전 시기, 북한을 분석한 대표적인 이론은 나치즘과 불세비즘을 분석한 전체주의 접근법을 들 수 있다(고유환, 2015: 30~35). 김일성이라는 1인을 정점으로 한 일당독재체제하에서 당과 국가가 사회를 압도하고, 공산주의 이념이 사회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데 전체주의 접근법은 설명력이 높았다. 현재까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1인 일당독재체제는 이 접근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붕괴 혹은 체제전환된 공산국가들에서 목격된 1인 독재체제로부터 집단지도체제로의 변화와 통제/계획경제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전체주의 접근법은 특정 시기(권력공고화의 초기단계)만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연철, 1998).

전체주의 접근법의 한계는 공간적으로도 논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 공간은 국가 스케일뿐만 아니라 글로벌(중국, 러시아 등), 도시(압록강을 마주한 중국의 접경도시들), 촌락, 근린 등의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들 간의 다층적 구성물일 텐데, 전체주의 접근법은 국가 스케일이 다른 스케일

3) 대표적으로 북한연구에서 내재적 접근을 제시하면서 북한연구와 통일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송두율 교수가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들 수 있다. 2008년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홍윤기, 2004).

들에 비해 선형적으로 우선적이고, 국가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논리와 관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마치 국가 스케일이 북한의 사회적 공간의 ‘전체’인 것처럼 과잉재현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가 확인된다. 그런데 북한연구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뒷에 빠진 원인은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론의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확보와 관련되는 방법론의 문제이기도 하다.<sup>4)</sup>

학술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반공사회를 유지해 왔던 제도적 근간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북한의 원전자료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하는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학술목적이더라도 연구자조차 자료이용에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 더불어 정부가 제공하는 반공선전물이나 북한에서 귀순한 탈북자들의 인터뷰, 회고록은 당시 정권의 검열을 거쳤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학술자료로 보기 어려웠다.

1990년대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흐름 속에서 원전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연구도 일부 숨통을 틔웠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전집은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이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등의 매체도 북한 당국의 의도에 맞추어 가공된 정보들인 만큼 이러한 국가 스케일상에서 빚어진 자료들만으로 북한 사회를 입체

---

4) 냉전시기 동안 남한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국가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한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은 국가 이외에 다른 스케일상의 행위자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간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Hwang(2016: 555)은 이러한 원인이 인식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연구자들이 국가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고한 자료들이 국가기구가 발표한 통계,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정부보고서와 고위정치인, 정부관료의 회고록,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와 같은 국가스케일 상의 자료들에 의존했다는 방법론적 문제도 관련되었음을 지적한다.

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sup>5)</sup> 물론 이들 자료에 기초하여 북한 국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유격대국가’(와다 하루키, 2002), ‘극장국가’(권현익·정병호, 2013)와 같은 개념들이 제시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역설적으로 국가 스케일에만 초점을 둔 이들 개념들은 여전히 국가중심적이며, 이들 연구에서 주목한 국가의 실천이 실제 어떻게 북한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도시연구의 부상

기존 북한연구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덫으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은 이 인식론의 소실점에 위치한 국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관건은 국가를 다른 스케일상의 행위자들에 비하여 강력한 행위자, 기구로서 선형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접고, 어떻게 다양한 스케일상에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국가 안과 밖에서 충돌, 경합, 갈등, 타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국가를 둘러싼 물신성을 거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판적 인문지리학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 지역 등의 다양한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에 민감한 다중스케일적 접근(multi-scalar approach) (Park, 2005)과 더불어 영역, 장소, 네트워크와 같은 상이한 공간개념들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접근(Jessop et al., 2008; Jessop, 2016)이 활발히 논의되어 왔었다.<sup>6)</sup>

5) 참고로 북한정부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경제학 전공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인 양문수는 “북한 연구에서 객관성과 실증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간행물에 대한 정독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낮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양문수, 2015: 109)이라고 평했고, 국제정치학 전공의 북한전문기자 황일도는 “공식통계가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 경제의 현실과 실증적 연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황일도, 2015: 198~199)한다고 논했다.

6) 지난 십여 년간 필자를 포함한 국내외 비판적 인문지리학자 그룹은 다중스케일



북한연구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는 도시 스케일을 주목하는 것이었다(대표 연구로는 최완규, 2004; 2006; 2007)와 북한 도시사연구팀, 2013; 2014). 본 논문에서는 이들 주목할 성과 중에서 동국대 북한도시사연구팀이 수행한 “북한의 도시사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 방법론 개발: 함흥, 평성의 비교도시사 연구토대 구축” 사업을 살펴본다.<sup>7)</sup> 연구책임자였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연구를 주도한 홍민 박사는 기존 북한연구에 내재된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평했다.

“지금까지의 북한연구는 대체로 국가 중심의 역사, 최고지도자나 당의 역사에 편중된 경향이 강했다. 특히 기존 북한연구의 공통적 특징은 체제 중심, 최고지도자 내지 중앙 정치에만 주목하여 다양한 도시 및 지방 공간이 가지는 고유성과 역동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공간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다”(고유환, 2013: 10).

“사실상 공간적 상상력과 구체성이 없는 평면적이거나 공간적 진공상태의 북한 사회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진행

---

적 접근에 바탕하여 기존 발전주의 국가론에 내재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왔다(박배균, 2012; 박배균·황진태, 2017; 이상현 외, 2017; Hwang, 2016; Doucette and Park, 2018; Glassman, 2018 등). 지난 2018년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시작으로 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조응하여 이들 연구자들은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시각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대표적으로 박배균 외, 2019).

- 7) 지면 제약으로 보다 상세히 논하지 못하지만 도시사(urban history)에 초점을 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이전에 동국대 북한학과에 소속된 연구자들(고유환, 박순성, 홍민 등)은 일상생활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이 일상생활 개념에 주목한 이유도 위로부터의 정치, 즉 최고정치지도자와 당에 초점을 둔 거시적 차원의 기존 북한연구가 갖는 일면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미시적 차원에서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상성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박순성·홍민, 2010; 홍민·박순성, 2013), 도시사 연구프로젝트까지 이어졌다.

되고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는 구체적인 공간적 맥락 속에서 더욱 역동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사의 공간적 맥락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좀 더 입체적인 북한 사회의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홍민, 2013: 103).

북한연구자들의 자체 평가에서 보듯이, 기존 북한연구는 국가와 최고지도자라는 국가 스케일 하나의 ‘평면’만을 주목하고, 국가 스케일을 제외한 북한의 사회적 공간을 구성하는 도시와 지방 스케일들을 간과한 ‘공간적 진공상태’였고, 이를 벗어나려는 대안으로 도시 스케일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팀은 1차년 성과인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북한도시사연구팀, 2013)은 2년차에 다룬 구체적인 사례연구지역인 함흥과 평성을 살피기에 앞서 기존 북한연구가 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과한 북한도시 자체의 고유성과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론적, 방법론적 성찰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책 전반부는 서구에서의 사회주의 도시연구 논쟁, 소비에트 시절의 러시아 주택정책과 바르샤바의 도시계획 등의 사례연구들로 구성되고, 후반부는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문헌자료, 구술자료, 시각영상자료)을 검토했다.

2차년 성과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적 도시사』(북한도시사연구팀, 2014)에서의 주요 연구방법론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술자료였다. 이 책에서는 수치지형도, 구글 어스(Google Earth) 지도 등을 이용하여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진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핵심적인 자료는 그 공간에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그들의 발언을 기록한 구술자료였다. 예컨대, 위성사진만으로는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 경관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누가 돈을

끌어왔고, 누가 건설을 허가했고, 아파트 건설로 얻게 될 이익을 둘러싼 갈등과 경합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파악하는 정치와 권력의 영역을 이해하기 어렵다(북한도시사연구팀, 2014: 4장).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탈북자 급증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북한연구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한 구술자료는 문헌상의 북한연구를 넘어서 북한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영주, 2015: 17). 이러한 혁신 덕분에 주목할 북한도시 연구성과들이 나올 수 있었다(조정아·최은영, 2017; 장세훈, 2017 등).

최근의 북한도시연구방법론에서 구술자료와 더불어 인공위성 사진에 기반한 구글 어스 맵의 활용도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홍민(2015)의 북한 시장화 연구는 구글 어스를 활용하여 북한도시들에서 전개되는 시장화의 역동성을 공간적으로 포착하고자 했다. 이 연구도 시장 변화의 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여러 자료들 간의 상호교차검증을 통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sup>8)</sup>

이상 소개된 연구방법들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한 북한연구자들의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으로서 SNS의 활용 가능성을 주목한다.

### 3)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의 도출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질리언 로즈(Gillian Rose)는 페미니스트 지리

---

8) 이는 북한도시뿐만 아니라 남한도시연구에서도 직면하는 문제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역사를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필자는 토박이들의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약 50~60년 전 대치동 구(舊)마을을 지도화하는 작업을 시도했었는데, 토박이들 간에도 각자가 기억하는 위치정보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게 되면서 당시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상호검증하는 방식을 취했다(서울역사박물관, 2018: 28~47 참조).

학 연구방법론과도 연결되는 시각적 방법론(visual methodology) 연구를 개척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정현주, 2013). 로즈가 제시하는 이미지 독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본 논문에서의 인스타그램 시각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 그녀는 이미지 독해가 발생하는 현장(site)을 네 곳으로 구분했다. 즉, 1) 이미지가 생산(production)되는 현장, 2) 이미지가 유통(circulation)되는 현장, 3) 이미지를 해석하는 (audiencing) 현장, 4) 이미지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이미지 그 자체를 현장으로 보았다. 각각의 현장들은 공통적으로 1)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적 양식(technological modality)[예: 스냅샷(snapshot) 촬영이 가능해진 카메라의 발달], 2)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내용, 색상, 공간적 조직을 배치하는 구성적 양식(compositional modality), 3) 이미지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관계, 조직, 실천의 영역을 의미하는 사회적 양식(social modality)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Rose, 2016: 2장 참고).

로즈가 제시한 이미지 독해의 네 가지 현장으로의 유형화는 한 장의 사진 이미지가 다양한 공간과 연관되어 있음을 환기시키고, 세 가지 양식의 유형화는 이미지로부터 다채로운 해석이 가능함을 밝혀냄으로써 이미지 독해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즉, 로즈는 하나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multiple spatialities)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로즈가 평가하길 기존 시각적 방법론 연구가 네 가지 현장 중에서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에 대해서 유달리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Rose, 2016: 40). 그녀에 따르면 생산된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에서 수용자는 이미지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자에 따라서 이미지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수용자는 이미지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Rose, 2016: 38).

본 논문은 최종 게재된 《공간과 사회》에 투고되기 이전에는 한 지리학 학술지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었다. 두 학술지의 심사평들 중에서 게재불가를 판정한 주요 이유는 인스타그램 이미지가 관광객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면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미지를 해

석한 필자의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심사자들의 평가는 로즈의 이미지 독해의 유형화를 따르면, 이미지가 독해되는 여러 현장과 양식들을 협소하게 간주하고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해석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Rose, 2016: 38)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심사자들이 가정한 이상적인 시각자료는 처음부터 연구자의 의도에 맞추어 현장이 촬영된 이미지이며, 이상적인 분석은 저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다양한 자료들의 교차검증을 시도한 것일 테다.

필자는 관련 논의가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자료와 분석의 기준을 논하기보다는 이미지 자료를 상이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현장(즉, 로즈가 지적한 네 가지 현장 중에서 가장 덜 주목 받은 현장)에 위치한 남한 사회의 연구자들을 주목하고자 한다. 3절에서 다룰 필자의 이미지 해석과정은 소위 ‘주관성’을 줄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는 교차검증도 간략하게 시도했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필자 해석의 주관성을 줄이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필자 내부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를 주목한다. 이러한 사유는 남한 연구자들의 북한연구에서 나타나는 방법론적 남한주의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남한연구자들의 북한연구가 갖는 맹점 중 하나는 남한은 주체, 북한을 객체로 간주하면서 남한의 의도와 기획에 의하여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식민화 메커니즘과 유사한 접근을 하면서 역으로 북한의 변화가 남한 사회에 줄 영향을 간과하는 ‘방법론적 남한주의’(황진태, 2018)가 팽배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들어가고, 나아가 분단에서 통일로의 이행단계에서의 다양한 실천, 시나리오를 논의할 지평을 수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미지 독해에서 방법론적 남한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비재현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Thrift, 2007)의 수용을 고려할 수 있다.

비재현이론은 이미지를 보는 사람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 이전(pre-signifying)’(Thrift, 2007)에 이미지를 보는 사람의 신체에 이미지가 미치는 정동적(affective)인 영향을 주목한다. 즉, 이미지는 순전히 사물에 대한 재현이 아니며, 인간의 신체에 감응을 유발한다(Latham and McCormack, 2009; Macpherson, 2010).

본래 필자가 SNS 이미지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동기는 기존 텍스트 중심의 북한연구방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북한연구에서 부족한 이미지 자료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대거 확보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차원이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하여 북한도시를 재현한 이미지들을 직접 마주한 필자는 예상치 못하게 북한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필자 자신과 필자가 살고 있는 남한사회의 공간으로 빈번히 향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그림 4>를 보면서 과거 남한사회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보수적인 문화가 떠올랐고, <그림 5>의 평양청년의 뒷모습을 보고서는 요즘 유행하는 멍 때리기 문화가 생각났으며, <그림 7>을 보면서도 서울 지하철역에서 흔히 마주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들이 연상되었고, 북한 사회에서 저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지 걱정과 긴장감이 스쳤다.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만든 남북한 간에 벌어진 차이를 부정할 수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둘 간의 유사성(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일한 외모, 언어, 음식문화등)이 매개가 되어 필자의 예상 못한 연상작용과 감정들[아마도 비재현이론의 용어로 ‘정동(affect)’]을 유발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북한연구자들도 필자와 같은 정동의 경험을 드러낸다. 가령, 통일연구원 조정아 박사는 최근 한 학술행사에서 평양시민들의 헤테로피아는 어디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표에서는 평양에 거주했던 50대 여성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지 못하다가 한국드라마를 계기로 이야기의 물꼬가 트였고, 이후 탈북 여성이 평양에서 겪은 삶의 고단함을 들으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지식인”(조정아 박사의 슬라이드 자료)인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었고, 탈북 여성이 평양에서의 행복했던 순간이 “눈이 평평 내리는 평양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정아 박사 본인의 감정이 고조되었음을 밝혔다(2019.12.05, 현장 메모). 이밖에도 필자가 최근 북한연구 관련 학술행사나 연구회의에서 만난 북한연구자들은 연구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성찰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sup>9)</sup>

이처럼 필자의 경험과 북한연구자들에 대한 관찰에서 보듯이 비재현이론은 북한 이미지를 바라보는 남한연구자의 정동적 반응을 포착함으로써 남북한을 바라보는 경직된 시각인 방법론적 남한주의로부터 탈출하여, 성찰적 태도로 북한연구에 임해야함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4) 북한도시연구를 위한 시각자료로서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전유

“이 세상에 결정적인 순간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앙리 카르티에-브레송(Henry Cartier-Bresson)의 사진집 『결정적인 순간』의 서문의 첫 문장).

---

9) 본 논문의 초고를 발표한 학술행사에서 논문에 실려 있는 사진을 본 북한연구자들은 이미지에 담겨진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특성에 보다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본 논문을 심사한 지리학자들의 시각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처음 투고한 지리학 학술지로부터 게재불가 평가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 북한연구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한 연구자는 북한학계에서도 모두가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질적 방법론을 적극 차용했던 자신의 연구가 북한연구 전문학술지에서 게재불가가 된 경험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연구자들은 자료 취득에 제한이 많은 북한연구의 특수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의 원고를 북한연구 전문학술지에 투고할 것을 조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SNS 매체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에 국한하여 논하고자 한다. 2010년 10월에 출시된 인스타그램은 기존 텍스트 중심 SNS[대표적으로 트위터(Tweeter)]와 대조되는 이미지 공유 중심의 SNS라는 특징이 있다.<sup>10)</sup> 선행연구가 밝히듯이, 인스타그램의 이미지 중심의 매체적 특성은 이용자의 자기애(自己愛, narcissism)를 표출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폭발적으로 확산(2018년 6월 기준, 가입자수 10억 명)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SNS는 다른 이용자와 연결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적 정체성(relational identity)이 중요한 이용 동기이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개인의 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Weiser, 2015; Sheldon and Bryant, 2016). 단면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애를 드러내는 대표 수단인 자기 자신을 촬영한 셀피(selfie)를 올리는 비율이 다른 SNS 매체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sup>11)</sup>

물론 인스타그램 이전에 출시된 SNS에서도 이용자와 자기애 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지만(Buffardi and Campbell, 2008), 이미지를 손쉽게 올리고, 저장이 용이한 “가상사진앨범(virtual photo album)”(Sheldon and Bryant, 2016: 94) 기능과 자신이 올린 이미지들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친구맺기 [즉, ‘팔로우(follow)’]를 하지 않은 익명의 이용자까지 볼 수 있도록 한 해시태그(#) 기능을 제공하는 인스타그램은 다른 SNS보다 자기애를 실현하기에 보다 효과적인 매체이다(Sheldon and Bryant, 2016).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이미지들은 낯선 장소(주로 관광지)에 있는 이용자를 타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독특하고, 더 나은 존재’(Sheldon and Bryant, 2016: 91)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여

10) 인스타그램의 어원이 순간을 의미하는 instant와 통신체계를 의미하는 telegram을 합성하여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는 점도 이미지 중심의 매체특성을 잘 보여준다.

11) 셀피는 2013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할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기서 필자는 이용자들의 셀피를 포함한 이미지들을 올리는 동기보다는 그러한 동기에 기반을 두어 촬영된 사진들에 수록된 인물, 배경, 공간 정보를 주목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연구자들은 직접 북한도시를 방문하기 어렵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들은 비록 이동의 제한은 있더라도 북한에 입국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고자 촬영한 이미지에 북한 관련 해시태그(대표적으로 #pyongyang, #northkorea)를 달아 놓으면, 이러한 해시태그는 연구자들에게는 북한도시공간을 살피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면서 해당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은 북한을 가지 못하는 남한의 북한연구자들의 ‘휴민트 [HUMINT(human intelligence: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얻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자신이 북한연구자들의 휴민트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리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언뜻 보면 연구자들의 의도와 무관한 자기애의 향연으로만 보인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이미지 유형인 셀피에서 보듯이 그들의 카메라 앵글은 평양의 도시공간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로부터 북한 사회 변화의 징후들을 포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sup>12)</sup>

탈북자들에 대한 구술면접 경험이 많은 조정아는 구술면접을 통하

12) 본 연구가 인스타그램의 셀피 이미지 배경을 주목한 것처럼 지형학자인 이민부 교수는 최근 한 학술대회발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널리 알려진 초상화인 모나리자의 배경에서 하천지형을 읽었다(2019.12.14. 현장메모; 이민부, 2019). 모나리자는 당시 피렌체의 한 부호가 자신의 부인을 위하여 의뢰된 작품이고, 주지하다시피 대중에게 모나리자 작품은 배경보다는 인물에 주목해 왔다. 지형학자가 인물화에서 하천지형을 읽었듯이, 본 논문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셀피에서 북한 사회를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로즈가 강조한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여 확보된 자료들은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 전형성, 대표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생애사를 매개로 드러나는 경험의 특별한 유형들은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의 특정 조건에서 포착되는 생활세계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현”(조정아, 2015: 189)한다는 점에서 주관성이 깊게 배어 있는 구술자료로부터의 ‘사회적 징후읽기’는 북한연구의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인스타그램에 실린 단편적인 순간이 담겨진 이미지들을 통하여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포착하려는 징후적 읽기는 조정아가 강조한 ‘구체적 일반성’을 추출하려는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사진에 있어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훌륭한 주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소하고 인간적인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모여서 “라이트 모티프(leitmotif: 오페라에서 반복되는 곡조 혹은 예술작품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주제, 중심사상을 의미함-인용자주)”가 담긴다고 본 저명한 보도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1986: 페이지 정보 없음)의 시각도 누군가에게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인스타그램 이미지에서 시각자료로서의 가치를 환기시킨다.

다음 절에서 확인하듯이, 연구자들에 의하여 확보되고, 해석된 인스타그램 이미지 자료들은 기존 연구방법론을 상호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인스타그램 이미지를 활용한 북한도시공간의 탐색: 평양을 중심으로

#### 1) 검색 방법

2절에서 논한 인스타그램의 방법론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3절에서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평양의 도시공간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북한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해시태그(평양, 북한 등)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이미지들이 검색된다. 2019년 9월 11일 기준으로 평양을 검색한 결과, 국문(‘평양’), 영문(‘pyongyang’), 한문(‘平壤’)으로 각각 13,173건, 96,082건, 3,157건이 확인되었다.<sup>13)</sup> 이는 해시태그에 사용한 언어에 따라서 검색량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는 세계공용어의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해시태그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통 평양을 방문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이미지에 해시태그를 붙일 때, 국문, 영문, 한문 혹은 이용자의 국적에 따라서 모국어를 병기한다. 영문 해시태그만 달아놓은 이미지의 경우, 국문 해시태그 검색결과에서는 누락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주어진 검색시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여 해시태그 검색을 할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지만, 방문객의 국적, 지위, 직업에 따라서 북한 당국이 허가한 평양에서의 이동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검색결과가 가장 많은 영문 해시태그 이외에 다른 언어의 해시태그에서만 접근 가능한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문 해시태그 검색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능한 복수의 언어로 검색하는 것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평양으로 검색된 이미지들 중에서는 평양이 아닌 남한에 위치한 음식점이나 음식 등이 검색결과에 섞여 나온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평양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문 해시태그로 ‘평양냉면’을 검색하면 300,236건이 나오는데, 이는 ‘평양’(13,173건)을 압도한다. 평양냉면에는 실제 평양의 냉면집 관련 이미지도 나오지만 남한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남한 젊은 층의 평양냉면에 대한

13) 참고로 북한으로 검색한 결과는 북한이 49,345건, 北朝鮮이 23,301건, northkorea가 660,126건, 北韓이 6,646건이었다. 해시태그는 북한이지만 대부분 평양의 도시공간을 가리키고 있고, 해시태그로 평양을 병기한 경우가 많았다.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평양, 북한과 같은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지명 다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명들을 입력할 수 있다. 필자는 평양의 도시계획, 공간구조, 건축물,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학술서(임동우, 2011) 및 연구논문(전상인 외, 2015; 박동민, 2018a; 2018b; 2019; 김기혁, 2014)과 비학술 분야 출간물인 기자의 르포, 평양에 체류했던 외국인 전직외교관 및 탈북자 출신의 회고록 등(에버라드, 2014; 튜더·피어슨, 2017; 정창현, 2013; 정재연, 2019; 주성하, 2018; 진천규, 2018)으로부터 구체적인 지명 리스트를 추출했다. 하지만 현재의 평양 관련 인스타그램 이미지들은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명은 해시태그로 검색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명들(가령, 승리거리)은 검색되지 않았다.<sup>14)</sup> 하지만 보편적 해시태그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정 지역이 촬영된 이미지들에 접근할 가능성은 앞으로 북한당국이 외국인 방문객 이동의 자유성을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열려 있다. 혹자는 현재의 인스타그램 이미지의 제한적인 분포를 이유로 연구방법으로서 SNS의 의의를 격하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이행단계에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예측 불허한 변화에 대비한 생산적인 자세일 것이다.

2항부터는 해시태그 검색을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들 중에서 1) 평양 도시공간의 최근 변화에 대한 재확인, 2)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확인, 3) 징후적 읽기를 통한 사이공간이라는 세 가지 유형을 살펴 보면서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인스타그램의 유용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여기서 소개할 세 가지 유형은 본격적인 연구이기보다는 방법의 예시를 연구자들에게 보여주는 데 방점을 둔다.

14) 대중에게 알려진 구체적 지명을 국문으로 검색한 결과, 평양, 북한에 비하여 검색 수가 현저히 적었다(예컨대, 려명거리 21건, 미래과학자거리 20건, 김일성종합대학 54건, 주체사상탑 160건, 룡라도 27건, 금수산태양궁전 20건, 류경호텔 105건, 해당화관 3건).

## 2) 평양 도시공간의 최근 변화에 대한 재확인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가 완공된 이후, 해외언론은 새롭게 건설된 마천루들로 변화된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뉴욕 맨해튼과 유사하다면서 평양과 맨해튼을 합성한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신조어를 제시하고, 이 신조어는 국내 언론을 통하여 남한 사회에도 알려졌다. 평해튼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평해튼에는 평양의 상위 1%가 살며, 이들은 서구 브랜드 의류를 입고, 고급 커피를 마시는 등의 사회주의국가 북한에 대하여 생각해 왔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을 목격했다고 보도하였다(The Washington Post, 2016.05.14). 김정은 체제는 려명거리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서 보듯이 도시공간의 대규모 물리적 개발을 정권의 통치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김정일 체제와 대비된다(홍민, 2017). 평양을 방문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올린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이하 그림 자료들의 원본은 천연색(컬러)이지만 논문에서는 흑백으로 게시되었다는 한국계로 추정되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젊은 여성이 려명거리의 신축된 아파트 건물 앞에서 촬영한 셀피이다. 이 사진처럼 외국인 방문객들이 최근 건설된 건조환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여러 셀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 구도는 기본적으로 이국(異國)의 낯선 장소를 방문한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가 읽혀진다(Sheldon and Bryant, 2016: 91). 이국들 중에서도 이들이 방문한 국가는 유엔이 십수 년 동안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인권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고, 이러한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그림 1>의 밝은 표정이 매칭되면서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도한다. 그런데 그녀가 촬영이 가능했던 것은 이용자의 자기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 북한 당국이 여성이 있는 공간에서의 사진촬영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림 1〉 여명거리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국계 여성의 셀피



여명거리와 같은 새로운 건조환경 건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북한당국은 이전 정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드론 촬영을 포함한 다채로운 사진촬영기술을 동원하고, 여명거리 준공식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하였다(홍민, 2017). 즉, 초대받은 외신기자들처럼 외국인 방문객들의 사진촬영 허용은 김정은이 만든 새로운 도시공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김정일 체제였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에 체류한 전직 영국 외교관이 회고하듯이, 그동안 외국인 방문객들의 평양 시내 사진 촬영은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였다. 정부의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뿐만 아니라 규율이 내재화된 평양시민들의 시선과 행동(촬영 제지 등)도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다(에버라드, 2014: 197). 평양에서 성장했던 20대 탈북자 여성(2017년 탈북)은 지금도 ‘예쁜 곳’이 아닌 ‘한심한 곳’( 좋지 않은 환경, 못사는 지역 등을 지칭함)을 촬영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평양시민들이 충분히 제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2019년 10월 인터뷰). 김정은 체제에서 새로운 건조환경이 건설된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평양의 대표적인 상징경관들[가령, 주체사상탑(<그림 2>)]이나,

〈그림 2〉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촬영한 백인 여성의 셀피



인민대학습당을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엄숙한 표정과 포즈를 취하지 않고, 자유로운 포즈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평양의 변화된 분위기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서유럽에서 활동하는 한 운동선수가 평양을 방문하여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북한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외국인의 촬영 제안에 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응하고, 적극적인 포즈를 취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는 외국인을 마주치는 것에 경계심이 덜하고,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는 평양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셀피이다. 평양 지하철역 승강장은 지하 150m에서 200m에 있기 때문에 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이란 이유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을 언론보도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여성들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단화를 신고, 짧은 원피스와 핫팬츠를 입은 모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장면은 평양시민들의 단조로운 의복과 대비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을 ‘멋짐

〈그림 3〉 백인 남성과 북한 학생들이 함께 촬영한 단체사진



〈그림 4〉 평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중국인 여성들의 모습



(coolness)’이 연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비가 명확해 진다는 것은 평양시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질서의식, 사회적 통념과 충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5)</sup> 하지만 사진 오른쪽 상단에 그녀들의 셀피 촬영을 바라보는 중년층으로 보이는 평양시민들의



표정은 덩덤하다. 이 덩덤한 표정만으로 평양시민들이 복장에 대한 보수적인 사고방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외국인 방문객들이 공공공간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익숙해졌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묵인으로 반응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

### 3) 평양 도시공간에 대한 징후적 읽기

앞에서 다룬 평양 도시공간의 스펙터클한 변화에 비하여 이 항에서 소개할 이미지들은 상대적으로 일회적이며,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회성과 사소함을 주목하는 징후적 읽기는 현재 평양의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평양시민들의 일상성을 파악하고, 그 일상성 속에서 앞으로의 변화의 단서를 포착한다는 점에서 긴요한 작업이다. <그림 5>, <그림 6>, <그림 7>은 ‘혁명의 수도’ 평양이 이데올로기로 꽉 채워진 공간이라는 지배적인 선입견과 달리 이데올로기와 규율로 장악되지 않은 ‘사이 공간’(박규택, 2016)들이 평양시민들에 의하여 생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는 오후 5시 30분 평양 한복판에 위치한 한 공원 풀밭 위에 앉아 있는 북한 청년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이 사진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 방문객은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평화로이 묵상하는 삶(peacefully contemplating life)”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을 본 필자는 요즘 유행어로 “멍을 때린다”는 표현이 떠올랐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멍 때리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도시에서의 정신없는 생활로부터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머릿속을 비우는 행위를 장려하고자 ‘멍 때리기 대회’가 개최될 정도이다

15) 북한 사회뿐만 아니라 남한의 도시공간에서도 외모, 복장(미니스커트, 배꼽티, 머리염색 등)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와 규율(1970년대 경찰 단속부터 오늘날에 공공공간에서 훈계하는 어르신들까지)이 있었음을 상기하자.

<그림 5> 풀밭에 앉은 청년의 뒷모습



(《주간경향》, 2014.12.23). 사회주의국가 중국의 청두시에서도 멩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념과 체제를 떠나 현대 도시사회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각박한 삶은 풀밭에 앉아 있는 평양청년의 구체적 삶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평양에서도 멩 때리기 문화와 유사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필자의 해석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는 한국에서 멩 때리기 대회가 존재하는 것은 “멍 때리는 행위가 힘들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한국사회의 반영”이라고 본다면서 <그림 5>는 한국과는 달리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필자와는 “반대로” 해석하였다. 심사자도 동의하듯이 여기서 관건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해석하는 현장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6>을 살펴보자.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행사에서 최초로 열병식을 선보인 이래로 김정은 체제까지 크고 작은 열병식들은 북한이 대내외에 군사력을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인민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중요한 국가의례이다(서유석, 2012: 78~79). 남한 사회에서는

<그림 6> 군사 퍼레이드를 응원하는 시민행렬 뒤에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에 관한 보도영상을 통하여 북한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 대로에 길게 늘어서 기다리는 평양시민들을 목격해 왔다. 영상 속 평양시민들은 군인들만큼이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시민군인’처럼 보였다는 점에서 열병식이 시민들에게 미친 규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있었던 한 열병식의 응원행렬 뒤쪽으로 이동하던 서구 관광객들의 카메라에 빨간 한복을 입은 여성이 행렬을 가림막으로 삼아 앉아서 쉬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앉아 있는 이유가 긴 시간이 소모되는 열병식이 따분해서인지 혹은 높은 기온과 한복 착용으로 더위에 지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열병식이 의도한 인민들을 규합하는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끝으로 <그림 7>은 앞서 <그림 4>에서 확인한 공간인 평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중년 이상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다. 크로아티아 국적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떤 이유로 그녀를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남성이 촬영을 시도하려고 스마트폰이나

〈그림 7〉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는 여성의 모습



카메라를 여성에게 향했을 때, 그녀가 어떤 생각과 감정이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다만 이 에스컬레이터의 공간은 북한당국이 “앉거나 걷지 마시오”(〈그림 4〉 참조)라는 문구를 새긴 공간이라는 점에서 규칙에 따라서 그녀는 이곳에 앉아서는 안 되었다. 무거운 가방을 짊어졌고, 피로가 누적된 지친 얼굴 표정의 그녀가 규칙을 지키기에 길이 약 100m에 달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서서 가는 것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고단했을 것이다. 사진 촬영 이후에 규칙을 어긴 사실을 촬영으로 기록이 남는 게 두려워 그녀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촬영 이전에 에스컬레이터에 앉은 그녀의 결정은 기존에 접했던 평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촬영 사진들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라는 점에서 규율이 작동하는 공공공간에서 느슨한 수준의 ‘일상의 저항’(박순성·홍민, 2010)으로 읽혀질 여지가 있다.

이상 세 개의 이미지에 대한 정후적 읽기로 확인한 사이공간들은

일상의 저항에 주목한 선행연구들(박순성·홍민, 2010; 홍민·박순성, 2013)에서도 논한다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텍스트가 아닌 가시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인스타그램 이미지처럼 실시간에 가까운 시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사이공간들과 그 공간을 전유하고 생산하는 북한 주민들이 시도하는 공간적 실천들이 누적된 지층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의 평양 만들기를 변화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로부터의 변화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는 징후적 읽기는 의미 있다. 또 다른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은 구체적인 의도와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징후적 읽기의 특성상, 이미지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점이다. 앞서 분명히 밝혔듯이, 주관성(혹은 정동)은 분석이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방법론적 남한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점이다. 연관되어 보다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집합적 해석의 공론장이 필요하며, 이 공론장에서는 그들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관성도 다뤄져야 한다.

#### 4) 평양 도시공간의 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확인

앞서 살펴본 인스타그램 이미지들을 통해서 평양의 도시공간이 상당히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지만으로 변화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즉,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이면에 작동하는 변하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하는 분석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이미지와 함께 남긴 텍스트를 주목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 중심의 매체이지만 이용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댓글 기능을 지원한다.

<그림 8>은 싱가포르 거주 여성이 평양의 한 지하철역에 위치한 문구점을 촬영한 것이다. 해당 사진을 본 이용자는 어떻게 북한에서

〈그림 8〉 싱가포르 거주 여성이 촬영한 평양 지하철역 내 상점 사진



이처럼 많은 사진을 찍었고, 평양시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는 댓글을 남겼다. 이미지를 올린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우리는 실제로 사진촬영을 허락받아야 했다. 여행가이드는 우리에게 군인이나 군사활동을 촬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예방 조치로서 우리가 가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촬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물어봐야 했다. 우리는 여행 일정대로 움직였다. 우리는 여행 일정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었고, 여행 일정과 다르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었다. 즉, 우리는 제대로 된 외출을 할 수 없었고, 우리가 체류한 호텔, 레스토랑, 여행가이드 이외에 평양시민들과 대화할 수 없었다”(인용자 번역).

답변을 통해서 변화하는 평양에서도 여전히 이동의 제약과 평양시민과의 대화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광가이드가 북한당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사전 조치로서 방문객들의 평양시민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방문객이 어느 수준

으로 행위에 제약을 받았으며, 방문객이 이에 대응하는 행동(가령, 가이드가 제시한 일정을 벗어나는 돌발행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서 확인한 변화된 분위기를 담은 이미지들을 보았을 때, 방문객이 평양시민들과의 대화가 원천 차단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튜브(YouTube) 등에 올라간 외국인 관광객의 평양방문 동영상을 보면 평양시민과 편하게 대화하는 장면을 빈번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이용자로부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나눈 주제에 따라서 대화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음식이나 관광지와 같은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회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보다 구체적인, 내밀한 정황을 파악하기에 공개된 댓글로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댓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연구윤리에 따라서 DM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4.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

본 논문은 기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을 보완할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SNS를 주목하였다. 북한 방문에 제약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필자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촬영한 현재의 평양도시공간 이미지에 대한 담론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1) 평양 도시공간의 최근 변화들(려명거리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16) 동영상 중심의 매체인 유튜브의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의 접근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 개방적인 도시 분위기 형성 등)에 대한 재확인, 2) 평양 도시공간의 변하지 않은 부분(외국인 방문객의 이동 및 주민접촉에 대한 통제 등)에 대한 재확인, 3) 평양 도시공간에 대한 징후적 읽기를 통한 사이공간(공공공간에서 평양시민들의 규칙위반행위 등)의 확인을 통하여 SNS를 이용한 북한도시연구방법의 유용성을 연구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SNS를 활용한 북한도시연구는 자료 확보 및 현장답사가 어려운 조건에서 새로운 정보의 확보가 관건인 북한연구의 특성을 감안할 때, 본 논문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논의와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와 같은 후속 연구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마무리된다.

첫째, 로즈(Rose, 2016)가 제안한 한 장의 이미지에 담겨 있는 다수의 공간성을 포착하는 접근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녀가 제안한 네 개의 현장과 세 개의 양식 유형화 틀을 바탕으로 한 촌촌한 이미지 분석으로까지 진전시키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논문 한 편의 분량을 넘어서는 과제이며, 아래에서 제시한 후속연구 과제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둘째, 이미지 자료의 해석과 축적에 관한 집합적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이미지들은 전체 자료 중에서 극히 일부이다. 앞으로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 있는 방문객들이 평양을 포함한 북한 도시를 방문하는 한 온라인상에서 관련 이미지들은 꾸준히 쌓여갈 것이다. 이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연구자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다. 이 과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두터운 해석집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또 다른 집합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이미지 자료들의 아카이브 구축방향이다. 이미지 자료들을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북한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아카이빙 방향에 관한 지리학계, 북한학계, 관련 정부부처(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등)들과의 집합적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

넷째, 본 논문의 연속되는 후속 연구는 양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이미지들이 위치정보와 시간정보가 포함된 지오태깅(geo-tagging)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인스타그램 서비스가 시작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들 이미지 정보들을 활용하여 시기별로 방문객들이 평양의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히트 맵(heat map)을 만들거나(이수안, 2017), 방문객들의 평양시내 이동 특성 및 이미지와 함께 이용자들이 함께 작성하는 해시태그, 제목 등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평양의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 이미지의 변화를 지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의 방법론을 남한지역에 적용한 연구로는 Jang and Kim, 2019; 이주운 외, 2018; 박예림 외, 2019; 박민영·박경, 2017을 참고바람). 이러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시도는 개별 사진을 텍스트로서 해석하는 질적 방법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평양을 방문한 수많은 방문객들의 흐름과 그러한 흐름이 평양의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대북정보수집의 차원에서의 SNS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앞서 제안한 이미지 아카이빙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급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은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SNS 자료의 속성은 북한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하는 정보기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평양에 비하여 검색량은 아직 적지만 개성, 원산, 신의주 등의 다른 북한도시들도 검색되는 이미지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검색범위를 북한 전역으로 넓힐 여지가 있다. 정보수집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지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외국인들이고, 이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 법무부 등의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지리교과를 통한 통일교육을 위하여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교수 및 학습안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SNS가 익숙한 초중등 학습자들에게 교육매체로서 SNS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 남북한 화합과 통일을 꾀어질 미래세대인 학습자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학습경험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해력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력 함양은 미래 통일의 최종단계와 이행단계의 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만큼 앞으로 지리교육학 전공자 및 현장 교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 필자가 제시한 추후 과제들에 대하여 독자들은 한편으로는 적국인 북한을 대상으로 대북정보수집수단으로서 SNS의 가능성을 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와 통일의 동반자로서 북한을 상정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지리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을 두고 모순적 혹은 분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로부터 기원한 이 모순의 매듭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연구에 참여가 저조했던 지리학자들이 각자의 관심 있는 주제에 참여하고, 기존 북한연구자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이 견고해 보이는 매듭도 결국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원고접수일: 2019.11.17.

심사완료일: 2019.12.10.

게재확정일: 2019.12.24.

최종원고접수일: 2019.12.24.

❖ Abstract

Seeing North Korean cities through the lens of Instagram

Hwang, Jin-Tae

In this paper, I attempt to explore the fruitfulnes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s a new research methodology for studying North Korean cities. Under continuing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South Korean researchers to access to North Korean materials. Despite its constraints, they have attempted to improve research methodology by focusing on literature materials, interview materials, and visual images, etc. Acknowledging the problem orientation of predecessors, I try to consider the powerful function of Instagram as a mobile photo-sharing and video-sharing site. Through an empirical, but explorative study, I suggest that Instagram should be explored in a wider context in that it includes the multiple realiti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ities.

Keywords: North Korean cities, Instagram, social network service, methodological statism, Pyongyang

참고문헌

- 권현익·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창비.
- 고유환. 2015.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조영주 편저.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27~53쪽.
- 김기혁. 2014. 『도로 지명을 통해 본 평양시의 도시 구조 변화 연구』. 《문화역사지리》, 26(3), 34~55쪽.
- \_\_\_\_\_. 2016. 『한국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북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1(5), 713~737쪽.
- 김연철. 1998. 『북한 연구에서 ‘위로부터 시각’과 ‘아래로부터의 시각’』. 《통일문제 연구》, 8(2), 5~19쪽.
- 드브레, 레지스. 1994. 『이미지의 삶과 죽음』. 전병국 옮김. 시각과언어.
- 박규택. 2016. 『사이공간으로서 로컬리티: 수행적 관계성, 미결정성, 관계적 스케일의 정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9(3), 1~12쪽.
- 박동민. 2018a. 『현대 조선식 건축의 탄생: 평양 대극장 건설과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4(10), 119~130쪽.
- \_\_\_\_\_. 2018b. 『건축가 김정희와 평양시 복구 총 계획도: 신화와 역사』. 《건축역사연구》, 27(2), 125~138쪽.
- \_\_\_\_\_. 2019. 『기능에서 상징으로: 평양역사 건설, 1907-1958』.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35(4), 115~126쪽.
- 박민영·박경. 2017. 『인스타그램 해시태그(Hashtags) 분석을 통한방문객들의 지오사이트 인식에 대한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24(1), 93~104쪽.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쪽.
- 박배균·지상현·이승욱 위음. 2019. 『한반도의 신지정학: 경계, 분단,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한울아카데미.
- 박배균·황진태 위음. 2017.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지방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 동녘.
- 박순성·홍민 위음. 2010.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한울아카데미.
- 박예림·강영욱·김동은·이주윤·김나연. 2019. 『플리커 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이미지 분석』.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7(1), 11~23쪽.
- 백낙청.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작과비평사.
- 북한도시사연구팀 위음. 2013.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
- \_\_\_\_ 위음. 2014.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한울.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 2018. 『2017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대치동 사교육 1번지』. 서울역사박물관.
- 서유석. 2012. 『북한 열병식 개최의 역사와 성격변화』. 《국방연구》, 55(2), 77~101쪽.
- 안재섭. 2013.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북한도시사연구팀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 77~101쪽.
- 양문수. 2015.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조영주 편저.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한올아카데미, 109~137쪽.
- 에버라드, 존. 2014. 『영국 외교관, 평양에서 보낸 900일』. 이재만 옮김. 책과함께.
- 와다 하루키.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동만 옮김. 돌베개.
- 이민부. 2019.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리학: 지도학과 지형학을 중심으로』. 『(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9년 연례학술대회 자료집』, 39~47쪽.
- 이민부·김길. 2016. 『통일지리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1(6), 873~892쪽.
- 이상현·김은혜·황진태·박배균 엮음. 2017. 『위험도시를 살다: 발전주의 도시화와 핵 위험경관』. 알트.
- 이수안. 2017. 『도시공간 향유의 인스타그램 분석과정에 대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적 해석』. 《사회사상과 문화》, 20(1), 219~254쪽.
- 이주윤·강영옥·김나연·김동은·박예림. 2018.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서울방문 관광객의 이동 특성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18(3), 117~129쪽.
- 임동우. 2011.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효형출판.
- 장세훈. 2017.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남북한 도시화의 비교와 전망』. 알트.
- 전상인·김미영·조은희. 2015. 『국가권력과 공간: 북한의 수도계획』. 《국토계획》, 50(1), 21~40쪽.
- 정재연. 2019. 『평양,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넥서스북.
- 정창현. 2013. 『평양의 일상』. 역사인.
- 정현주. 2013.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젠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43~247쪽.
- 조영주 편저. 2015.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한울.
- 조정아. 2015.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도시 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조영주 편저.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한올아카데미, 170~197쪽.
- 조정아·최은영. 2017.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통일연구원.
- 주성하. 2018. 『평양자본주의백과전서』. 북돋움.

- 진천규. 2018.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타커스.
- 최완규 엮음. 2004.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아카데미.
- \_\_\_\_\_. 엮음. 2006.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아카데미.
- \_\_\_\_\_. 엮음. 2007.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한울아카데미.
- 카르티에-브레송, 앙리. 1986. 『앙리 까르띠에-브레송.』 강운구·권오룡 옮김. 열화당.
- 튜더, 다니엘·제임스 피어슨. 2017. 『조선자본주의공화국.』 전병근 옮김. 비아북.
- 황일도. 2015. 『야간 위성사진을 이용한 북한경제 관찰방법론 연구: 1992-2009 불빛 개수 증감으로 본 상황추이를 중심으로.』 조영주 편저, 『북한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방법론·연구방법.』 한울아카데미, 198~227쪽.
- 황진태. 2018. 『행성적 도시화와 한반도 도시연구.』 통일연구원 주최 KINU북한도시 포럼 발표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최, 11월 29일.
- 홍민. 2013. 『북한연구에서 ‘공간’ 이해와 도시사의 가능성.』 북한도시사연구팀 엮음.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한울, 102~137쪽.
- \_\_\_\_\_. 2015.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통일연구원.
- \_\_\_\_\_. 2017.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통일연구원.
- 홍민·박순성 엮음. 2013.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 지배와 저항 사이에서.』 한울아카데미.
- 홍윤기. 2004. 『송두율 교수 사건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송두율 교수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26, 29~81쪽.

- Agnew, J. 1994. “The territorial trap: the geographical assumpt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1), pp. 53~80.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 Buffardi, L. E. and Campbell, W. K. 2008.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0), pp. 1303~1314.
- Doucette, J. and Park, B. G. 2018. *Urban Developmentalism in East Asia*. Brill.
- Glassman, J. 2018. *Drums of War, Drums of Development: The Formation of a Pacific Ruling Clas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 1945-1980*. Brill.
- Hwang, J. T. 2014. “Territorialized urban mega-projects beyond global convergence: the case of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Project, Seoul.” *Cities*, 40, pp. 82~89.
- \_\_\_\_\_. 2016. “Escaping the territorially trapp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thesis.”

-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8(4), pp. 554~560.
- Jang, K. M. and Kim, Y. 2019. "Crowd-sourced cognitive mapping: a new way of displaying people's cognitive perception of urban space." *PloS one*, 14(6), e0218590.
- Jessop, B. 2016.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and multispatial metagovernance." *Territory, Politics, Governance*, 4(1), pp. 8~32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pp. 389~401.
- Knox, P. L. and Taylor, P. J. (Eds.). 1995. *World Cities in a World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tham, A. and McCormack, D. P. 2009. "Thinking with images in non-representational cities: vignettes from Berlin." *Area*, 41(3), pp. 252~262.
- Lee, S. H. Hwang, J. T. and Lee, J. 2018. "The production of a national riskscape and its fractures: nuclear power facility location policy in South Korea." *Erdkunde*, 72(3), pp. 185~195.
- Lee, S. O. Jan, N. and Wainwright, J. 2014. "Agamben, postcoloniality, and sovereignty in South Korea." *Antipode*, 46(3), pp. 650~668.
- Macpherson, H. 2010. "Non-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body-landscape relations." *Geography Compass*, 4(1), pp. 1~13.
- Park, B. G. 2005. "Globalization and local political economy: the multi-scalar approach." *Global Economic Review*, 34(4), pp. 397~414.
- Rose, G. 2016. *Visual Methodologies: An Introduction to Researching with Visual Materials*. Sage.
- Sheldon, P. and Bryant, K. 2016. "Instagram: motives for its use and relationship to narcissism and contextual 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8, pp. 89~97.
- Thrift, N. 2007.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Routledge.
- Wallerstein, I. 1974.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16(4), pp. 387~415.
- Weiser, E. B. 2015. "#Me: narcissism and its facets as predictors of selfie-posting frequen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pp. 477~481.

#### 언론자료

《주간경향》. 2014.12.23. "나는 멍 때린다, 고로 존재한다."

*The Washington Post*. 14 May, 2016. "North Korea's one-percenters savor life in 'Pyonghattan'."